‘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남·북한 통합의 인문학적 탐색

김영성(당진 송악초등학교)

<< 요 약 >>

통일은 정치·경제·국토의 통합을 넘어서 모든 코리언들의 화합과 양질의 삶을 증진시켜주는 과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관점은 통일의 논리적인 당위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중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공동체적 접근은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차이를 인정하고, 중첩의 과정을 통해 닮음(유사성)을 찾아서, 이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공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통합의 관점을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였다.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은 모든 코리언들의 정서적·문화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패러다임을 독일의 사례와 통일인문학이 지닌 가치를 통해 그 의의를 탐색하여 남·북한 통합의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였다. 이 관점은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통일 주체로 받아들여 모든 코리언들의 내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남·북한의 차이의 소통과 닮음의 유사성을 상호 인정하여 언어 내지 어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은 민족공통성 창출의 사례이자 정서적·문화적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민족공통성 창출을 위한 통합 패러다임은 정치·경제·체제의 통합과 더불어 그 이전에 남·북 주민들의 정서적·문화적 통합을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민족공통성 창출의 방향은 언어, 문화, 역사, 체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통한 닮음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에 있다. 또한 민족공통성 창출 방향은 더 많은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이를 탐색하여, 닮음의 확장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통일 내지 통합을 위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닮음의 유사성을 찾아 증진하는 민족공통성의 창출 및 확장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민족공통성, 통일, 통합, 동질성, 이질성, 닮음, 차이, 유사성, 통일인문학, 코리언 디아스포라, 겨레말 큰사전

www.kci.go.kr

Ⅰ. 서론

통일은 단순히 체제, 경제, 국토의 통합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코리언들의 화합과 양질의 삶을 증진시켜주는 과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 통일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사회적 시각에서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존의 접근은 논리적 당위성을 통한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남·북한 구성원들의 욕구 및 정서와 문화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한 기존의 통일 방안 및 남·북한의 우월성 논의를 넘어서 실제 남·북한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적 통합 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탐색을 할 것이다.

기존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실제 남한과 북한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이질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체제와 정치 문제에서 벗어나 구성원 개개인의 정서와 욕구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일한반도의 통합 과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인문학적 패러다임의 세 단계 중 소통과 치유의 단계를 지나 '통합'의 단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구성원 개개인의 화합과 양질의 삶을 구현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즉, 혈연과 민족적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족 구성원의 공통분모를 찾아 민족공통성의 창출을 통해 통일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공통성 창출의 사례로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겨레말 큰사전' 편찬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민족공통성 생성 내지 발굴의 과정과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동일성으로서의 통일을 넘어서서, 민족공통성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통합의 관점 내지 미래에 지향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민족공동체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난 민족공통성의 창출로서의 인문학적 통일 패러다임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둘째, 독일 통일 사례와 연관 지어 새로운 남·북한 통합 모델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에 관해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 '겨레말 큰사전' 편찬 등의 민족공통성 창출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민족공통성 창출 내지 생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인문학적 통합 패러다임의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www.kci.go.kr

Ⅱ. 통합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의 이론적 배경

1. 민족공동체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논의

통일을 위한 근본적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서 민족의 개념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다. 통일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민족으로 이어진 유대의 끈을 잇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동안의 민족 내지 민족공동체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민족을 보는 관점은 크게 민족주의적 관점과 탈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은 "사회역사적으로 과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유기적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김성민 외, 2015; p.241.) 이는 혈연·언어·역사 등의 객관적 요소와 더불어 이념·소속감·감정 등의 주관적 요소에서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 민족주의자의 관점은 한반도의 오래된 역사에서 비롯된 강한 유대감과 공통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동질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차이를 불인정하고 배제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동일성으로서의 민족정체성 확립을 강조하였던 민족주의자의 관점은 "하나의 잣대나 지표로 환원되는 환원주의나 단순화에 의해서 타자를 배제하는 '제거와 폭력'의 논리일 뿐인 것이다."(김성민 외, 2015; p.31.)

이는 전통적 민족주의의 관점이 동일성의 폭력을 야기하여 '같음'을 기준으로 민족과 민족이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니게 된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다름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낳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과거의 역사와 뿌리의 강조는 남북한에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도 야기하였다. 또한 뒤에 자세하게 논의될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민족적 공통 요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에서 배제하였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전통적 민족주의자의 관점과 대비되는 탈민족주의적 관점은 민족을 근대에 나타난 새롭게 구성된 정치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민족의 개념인 동질성의 강조에서 벗어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탈민족주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을 하나의 실체로 여기지 않고,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재탄생된 개념으로 보았다. 이는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냈다."(베네딕트앤더슨 저, 2002)는 명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민족의 개념을 부정하고 집단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민족의 개념을 이해한 것이다.

www.kci.go.kr

탈민족주의는 기존의 민족주의가 동질성으로 인한 폭력이 만든 문제점을 이질성의 강조를 통해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느끼고 있는 민족적 유대와 소속감을 부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식민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여 디아스포라의 개념 범주로 분류하고 이념화하였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즉, 탈민족주의적 관점은 모든 코리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자체를 부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관점의 통일 내지 통합의 패러다임은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족주의는 과거 하나의 뿌리에 기반을 둔 동질성을 강조한 반면, 탈민족주의는 민족의 개념을 부정하고 서로 다른 집단의 이질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두 가지 논의는 모두 '동질성과 이질성의 패러다임'에 국한되어 서로 '같다 내지 다르다'로 구분하고 차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에 대한 시간적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즉, 전통적 민족주의의 관점은 민족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과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탈민족주의 관점은 민족이라는 근원적 요소를 배제하여 통일의 근본적인 당위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민족적·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개체를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민족에 대한 개념은 민족주의적 접근에 가까웠다. 그 민족 내지 민족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속에서 살펴보면, 먼저 민족공동체는 같은 혈연으로 구성된 단일민족으로 존재하였던 역사적 실체라는 점이다.(김종남, 2015; p.19.) 이는 민족공동체로서 그 실체를 과거의 문화에 대한 동질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민족적 뿌리의 토대를 역사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유한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관점은 과거 지향적이면서 정통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혈연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민족과의 융화로 형성된 민족이 아니므로 민족주의적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김종남, 2015; p.20.)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관 및 문화 양식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적 관점의 한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한 독자적 민족요소를 중심으로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같이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것에 대한 민족적 요소를 배제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민족을 보는 관점 정리하자면, 민족공동체는 과거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www.kci.go.kr

그 동일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복원하여 통일을 이룩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의 변화 지향적이면서 다원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한 불인정과 과거의 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 확립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이고 차이와 공통성을 모두 수용하는 '민족공통성(national commonality)'의 개념을 통한 인문학적 탐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대안으로서의 민족공통성 창출

앞서 본 민족공동체적 접근은 기존의 민족을 하나의 뿌리에 근원을 둠으로써 동일성을 바탕으로 민족의 통합 내지 화합을 이루려고 하였다. 민족공동체적 접근으로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기존의 관점은 변화하는 남북의 관계에서 그 차이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민족공동체적 접근의 통일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 대안으로서 인문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통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차이와 공통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일은 정치체제와 경제적인 통합을 넘어서 과정으로서 남북한 주민들의 화합과 양질의 삶을 증진시켜주는 것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정치·경제·이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주민들의 화합과 양질의 삶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내면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차이에 대한 관심과 유사성(닮음)에 초점을 둔 민족공통성 증진과 관련된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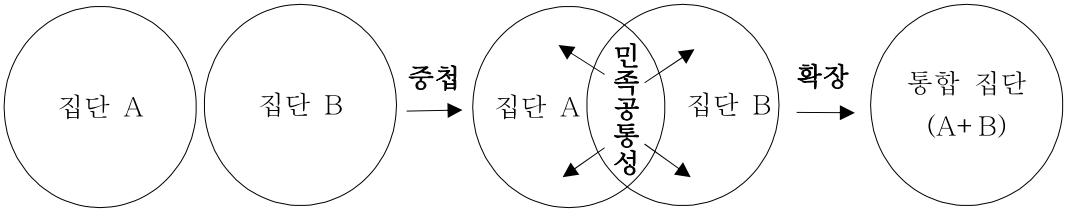
민족공통성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 우선 '닮음'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의 개념은 본질주의를 비판하고 비본질주의를 주장하는 개념이다.(김성민 외, 2015; p.228.) 가족끼리 서로 닮았다고 할 때 그 본질 내지 동일성의 요소가 서로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서로 부분적인 요소 혹은 공통적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같다는 동질성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생김새의 유사성의 중첩으로서 닮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분단의 역사 속에 남·북한 주민들의 경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그 차이를 하나의 뿌리라는 민족동질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남북한

www.kci.go.kr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닮음(유사성)의 중첩 방식을 통하여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닮음의 공통분모를 창출하여 확장시켜 나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 이루어져 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단 한 번의 시도가 아닌 끊임없이 소통하고 아픔을 나누면서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적인 부분을 넓혀 점증적인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통적인 부분을 창출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민족공통성 창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민족공통성 창출과 통합의 과정



민족공통성의 창출은 단순하게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적인 공통성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공통성만을 찾는 연구는 동질성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동질성의 폭력으로서 이질성 내지 차이를 가진 다른 코리언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족공통성 창출은 상호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통적인 중첩부분을 찾는 과정을 넘어서, 공통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점차 넓혀가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다. 통일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민족공통성 창출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점증적인 확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점증적인 확대의 과정으로서 민족공통성의 창출은 기존의 민족공동체적 접근과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민족공동체는 과거의 뿌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동질성의 개념으로 민족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고유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반면 민족공통성의 접근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과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고유한 문화보다는 미래에 적합한 변형 문화에 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동질성보다는 상호간의 차이와 공통성(내지 유사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공감을 통한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김성민 외, 2015; p.232.의 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나타냄.)

www.kci.go.kr

〈표〉 민족공동체와 민족공통성의 특징 비교

구분 / 특징	민족공동체적 접근	민족공통성 창출의 패러다임
주안점	동일성	차이-공통성
정체성	인지적 요소(의식적 규정)	비인지적요소(정서적 공감)
연구방향	정체성의 확인	차이의 공감과 연대 의식
지향점	민족의 이질성 극복	닮음의 중첩과 확장을 통한 통합

위의 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민족공동체적 접근은 그 주안점을 동일성에 근간을 두어 민족 간의 동일한 특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민족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규정하여 집단 내의 통합 내지 통일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는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 하나의 민족이라는 기존 민족의 개념 범주 안에서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적 접근 방식은 하나의 뿌리라는 근간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집단의 유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의 변화와 70여년의 분단의 고착화로 인한 남·북한 주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예로 민족공동체 접근의 중점이 된 동질성의 접근은 서로 다른 차이를 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다양한 코리언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적 접근에서 강조한 민족의 전통적 뿌리의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정통성 다툼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반면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의 패러다임은 그 한계를 넘어 서로 다름(차이)을 소통을 통해 찾고 인정하면서 공통성을 새롭게 창출하기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족공통성 접근은 상호간의 소통을 전제로 둔다. 서로 소통을 통해 차이를 마주하게 되며,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정서적 공감을 통해 차이를 존중하는 정체성을 지닌다. 즉, 민족공통성 창출의 패러다임은 소통을 통한 차이의 이해와 더불어 상호간의 닮음의 중첩을 찾아 이를 확장하는 것을 통해 내면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은 기존의 접근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 장점은 첫째, 미래지향적인 변형문화를 지향하여 새로운 문화적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논리적·인지적 당위성을 찾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인 공감과 정서적 통합을 바탕으로 사람으로서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가치와 새로운

www.kci.go.kr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들을 비롯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내·외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장점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정치·사회·이념 등의 통합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인문학적 통합의 토대로서 민족공통성을 창출하여 내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외재적인 통합보다 집단 구성원들의 소통을 근간으로 내재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가 된 유대감은 증대하고 갈등 내지 마찰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람으로서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Ⅲ.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

1. 통합의 토대로서 민족공통성론

차이를 인정하고 닮음의 중첩을 통해 공통성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 '민족공통성' 창출은 이전의 접근 방법과 비교하여 보면 진정한 의미의 통합(내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민족공통성을 창출이 전제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체제와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 상호간 정서적인 통합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다문화 내국인들까지 포용하는 통합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민족공통성론으로서의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에 관하여 인문학적 탐구를 하고자 한다.

민족공통성은 닮음(유사성)의 공통성을 찾아 이를 점증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통해 창출된다. 이는 과정적 의미로서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서로 소통하고,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공통성을 찾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민족의 합력을 증진하면서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민족의 발전 속에서도 유대의 끈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민족공통성 창출을 토대로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을 모색하면 그 특성은 남북 주민의 이해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미래의 가치들과 변화에 탄력적인 통일관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민족공통성론을 통한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특성은 아래와 같다.

민족공통성론을 적용한 패러다임의 특성은 첫째, 고정된 과거의 동질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www.kci.go.kr

아닌 새로운 민족적 공통성을 만드는 과정에 주안점을 둔다. 과거의 민족공동체적 접근은 역사적 단결 및 동질성에 주목하는 관점에 주목한다. 반면 민족공통성론을 적용한 패러다임의 관점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한 미래에 주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서로 다른 환경, 체제, 이념을 넘어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서로의 공통성을 찾아 이를 보다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헬레니즘 시대와 같이 새롭고 조화로운 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목적과 의의를 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민족공통성론으로서 통합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코리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기반과 토대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해당 국가와 남·북한의 문화적 양상인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그동안 민족공동체적 측면에서 보면 동질성을 흐리고 있는 재외 동포라고 보았다. 그러나 민족공통성론으로서 통합 패러다임의 관점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차이를 수용하고 공통성을 찾는 노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든 코리언들의 닮음(유사성)을 찾고 이 민족공통성을 보다 확장 및 창출하여 새로운 삶의 토대와 양식을 만드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민족공통성론으로서 통합의 패러다임은 정치·경제·이념·사상적 통합이 아닌 모든 코리언들이 갖는 내면의 정서와 생활 문화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인문학에 기초한 민족공통성론이기에, 인문학이 갖는 본질적 의미대로 인간에 대한 내면적 통찰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람의 통합'을 이룩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북한학 연구의 이해를 넘어서 실제 생활과 문화 전반에서 민족공통성의 확장에 중점을 둔 것이기에 북한 주민을 비롯한 남한주민, 코리언 디아스포라 등 모든 통일 주체들의 내면적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을 탐구한 것이다. 이는 외재적 통합보다는 내재적 통합, 체제의 통합보다는 정서와 문화적 통합을 우선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위 세 가지 민족공통성론으로서 통합 패러다임의 특성은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적합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호 이해 및 교류 협력을 통한 방법을 통해 내 안의 타자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역사적 트라우마를 공유한 민족구성원을 치유하여, 참된 의미의 사람으로서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외면해온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또 하나의 통일 주체로서 포용하여, '사람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큰 토대가 될 것이다.

www.kci.go.kr

2. 독일 통일의 역사와 통일인문학 탐구를 통한 민족공통성 창출의 의의

민족공통성을 창출하는 것은 모든 코리언들의 내재적 통합 내지 사람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에 평화통일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여기서 민족공통성은 추상적 관념의 의미로서의 공통성이 아닌 실제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생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차이의 인정과 닮음의 중첩을 통해 민족공통성이 형성되고, 이것이 확장되어 내재적 통합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민족공통성 창출의 개념이 나타난 통일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면, 사람으로서의 통일 내지 통합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알 수 있다.

통일인문학은 남북 체제 및 국가의 통일만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모든 코리언의 통합을 지향한다. 또한 사람으로서의 통일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소통·치유·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끊임없는 세 과정의 순환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내 안의 타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닮음으로서의 공통성을 찾아 확장하여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를 살펴본다면, 기존의 정치·경제·이념·체제의 갈등을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내재적 만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잦은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여 소통·치유·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형성되어야 하며, 만남의 기회에서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여 공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동질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민족의 뿌리를 찾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에서 빚어지는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동질성의 회복에 주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정통성의 문제와 여러 갈등이 야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동질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리고 있다. 그렇기에 정통성과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성(닮음)을 창출하고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단 상황을 종식하고 남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패러다임을 통해 사람의 통일 내지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독일 통일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은 1949년부터 분단되었고 1990년에 서독을 중심으로 통일하였다. 41년의 분단 역사에서 서독은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헌법의 개념 대신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63년에

www.kci.go.kr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지향하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정책은 현상유지와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제도화된 병존의 단계를 거쳐 공존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다. 이는 과정으로서의 장기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과 함께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예를 들어 1963년 말경에 통행증협정이 체결되어 서독의 주민들 일부가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신동방정책으로 말미암아 300만 명 이상의 동독주민들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인해 동독이 개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동·서독 간의 잦은 왕래를 통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열어 민족공통성을 창출하고 확장한 점과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문화·체제적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독일 통일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독일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단번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인 통일만으로 통일을 이룩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서독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력 축적, 외교 역량, 주변국들의 신뢰 확보 등의 덕도 있었지만 동·서독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통일과 통일을 이룩한 후 갈등 완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인문학을 기반으로 독일의 통일이 남북 관계 및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기반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잦은 교류와 왕래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족공통성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시적인 통일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의 콜 수상의 경우 조기 통일 방안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지만 그 과정을 경시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사람의 통합이 체제·경제적 통합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체제적·경제적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남·북 주민을 비롯한 모든 코리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의 역사적 사례와 통일인문학은 소통을 통한 차이의 인정과 공통성(닮음)의 창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차이의 인정과 '닮음'의 확장 과정을 통해 민족공통성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사람의 통합)을 완성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3. 민족공통성 창출 사례 분석을 통한 민족공통성 생성 방향 탐색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공통성 창출로서의 통합 패러다임은 코리언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닮음(유사성)을 점차 확장시켜 민족공통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시도한다.

www.kci.go.kr

그렇기에 이 통합의 패러다임은 여러 코리언들의 닮음의 중첩을 찾아 확장하는 과정을 통한 '사람의 통합'을 지향한다. 즉, 과정으로서의 민족공통성 창출 사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민족공통성의 창출 내지 생성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1. 민족공통성 창출 사례 1 : 코리언 디아스포라

우선 민족공통성 창출의 한 사례이자 새로운 통일 주체라 할 수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재일조선인,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등 다양한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집단을 의미한다.(김성민 외, 2015; p.236.)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일제 식민지 탄압으로 인한 강제 이주와 조국 분단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였다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이 깊은 특성을 보이며, 동시에 살고 있는 국가의 지역적 특수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특징들을 미루어보면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해외 거주 한국인 집단의 의미를 넘어, 닮음(유사성)이 중첩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에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의 사례이자 또 다른 주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여러 접근에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통일 주체로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동일성에 주안점을 둔 민족공동체적 접근에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민족적 요소(식문화, 심리적 동질성, 유대감 등)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일문제 논의에 있어서 다수 배제되어 왔었다.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여 개별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디아스포라와는 다르게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아픔(일제의 식민지배 및 수탈, 남북 분단)을 공유하였다는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의 관점은 모두 기존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의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통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을 넘어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의 패러다임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바라본다면, 남북 통합의 한 주체로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의 관점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바라본다면,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적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들만의 문화적 변용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한 뒤, 서로의 닮음(유사성)의 중첩을 통해 그 공통성을 찾아 이를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www.kci.go.kr

통해 민족공통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패러다임은 남북 체제의 통일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코리언들의 내재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또한 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는 민족적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의 통일의 주체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민족공통성 창출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새로운 통일 주체로 받아들일 때 여러 장점들이 있다. 첫째,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남북의 체제를 넘어서 제3국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와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하면서 창조적인 민족적·문화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족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변화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족공통성을 지닌 통일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세계에 남북한 평화통일에 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과의 협력을 보다 지향하여야 하며, 남북 통합의 한 사례이자 주체로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인정하고 민족공통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3.2. 민족공통성 창출 사례 2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겨레말 큰사전' 편찬 노력

앞서 살펴본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새로운 통합의 주체이자 민족공통성 창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례였다면, 이번에는 남·북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민족공통성을 창출한 사례를 통해 민족공통성 창출의 의의와 방향을 더 탐색하고자 한다. 그 예 중 하나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겨레말 큰사전' 편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을 비롯한 코리언들의 '닮음(유사성)' 중 대표적인 것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의 오랜 고착화로 인해 많은 어휘와 언어규범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차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간의 어휘와 언어규범의 공통성(닮음)을 중첩하여 찾아내고, 이를 확장시켜 통합을 이끌어낸 예 중 하나가 지금 제작 중인 '겨레말 큰사전'의 편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4월에 납·북 합의를 통해 남·북한의 통합 국어사전 편찬을 합의한 뒤, 2005년에 '겨레말 큰사전 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남·북한 언어 전문가가 모여 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오래된 분단의 역사를 넘어 소통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닮음 내지 유사성인 '한글의 사용'의 중첩을 확장하여 '사람의 통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www.kci.go.kr

우선 남·북은 한글 사용이라는 닮음 내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음운, 문법, 어휘, 어문 규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은 두음법칙의 사용이 없으나(예: 로동, 녀자), 남한은 두음법칙이 허용된다.(예: 노동, 여자) 또한 어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경우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며(예: 인민배우, 혁명가정), 남한의 경우 외래어가 다수 있는 차이를 보인다.(예: 도너츠, 팀)

그 외에도 다수의 한글 사용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2004년까지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그 차이가 점차 심화되어 온 것이다. 그 차이를 남·북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닮음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줄이고 언어를 통한 인문학적 통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글 자음 기재 순서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의 기존의 한글 자음 순서와 '겨레말 큰사전'의 자모 순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준	자음 순서
남한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북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ㅇ
겨레말 큰사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남한과 북한의 자음의 순서는 남한의 경우 원래부터 써 온 순서대로 'ㅇ'의 위치를 두었으나, 북한의 경우 'ㅇ'이 소리가 나지 않는 자음이기에 가장 뒤에 두어온 것이다. 그리고 된소리(ㄲ, ㄸ, ㅃ, ㅆ, ㅉ)의 경우 남한은 그에 해당하는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 뒤에 표기하나 북한은 뒤에 모두 한 번에 순서를 나타낸다. 그 차이를 상호간에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서로 차이를 수용한 뒤 양보하여, 위의 표와 같이 '겨레말 큰사전'의 자음 순서가 완성된 것이다. 'ㅇ'의 경우 남한의 순서에 따른 것이며, 된소리의 경우 북한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위의 경우 외에 차이의 존중과 닮음의 중첩 후 확장 과정을 거쳐 어휘를 통합한 경우도 민족공통성 창출의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합의를 마친 남·북한의 어휘의 단일안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권재일, 2015; p.119-121의 내용을 재구성함.)

단일안(겨레말 큰사전)	남한 어휘	북한 어휘
거북이(남한 어휘로 통합)	거북이	거부기
잠바(북한 어휘로 통합)	점퍼	잠바
메세지(제3의 안으로 통합)	메시지	메쎄지

www.kci.go.kr

어휘의 경우에도 위의 표처럼 남한과 북한의 사용 어휘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상호간 소통을 통해 이해하여 닮음의 유사성을 찾아낸 뒤, 적절한 단어로 그 중첩한 바를 확장시켜 어휘의 통합을 이룬 것이다. 남한 혹은 북한의 어휘 중 하나로 닮음의 중첩 과정에서 확장시켜 통합한 바도 있으며, 새로운 제3의 안으로 통합하는 민족공통성 창출 과정에서 파생된 어휘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민족공통성 창출 과정이 언어적 통합을 이루고, 보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남·북한의 인문학적 통합에 밑거름이 됨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자음 순서와 더불어 어휘의 통합 사례를 통해 민족공통성 창출의 의의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차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닮음의 중첩 과정을 통해 민족공통성을 찾아 이를 확장하여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차이가 줄어들면서 민족어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및 개인적 차원에서도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 닮음의 유사성을 찾아 확장하는 과정도 '겨레말 큰사전 편찬'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민족공통성 창출은 코리언들의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 닮음을 중첩시켜 차이를 줄이는 통합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족공통성의 창출 방향은 기존의 동질성과 민족적 관점에서 이질성 극복의 패러다임에 갇혀 서로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의 존중과 닮음의 중첩을 통한 민족공통성의 창출이 언어를 넘어 내재적·정서적 통합도 이루는 것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민족공통성 창출의 방향 탐색

민족공통성 창출의 사례로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겨레말 큰사전 편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사례를 통해 민족공통성의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상호간의 위원회 교류 활성화는 물론 남·북 주민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차이를 민족공통성 확장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민족공통성이 창출되어야 한다. 민족공통성 창출이 지향하는 방향은 '사람의 통합'이며, 이는 내재적·정서적 통합이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에 앞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다양한 통일 주체로서의 코리언을 수용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변화하는 상황을 넘어 민족공통성 창출과 확장을 통해 언어의 통합을 하는 겨레말 큰사전의 제작도 전문가 집단에서의 활성화된 교류와 소통 과정이 필요함을

www.kci.go.kr

일깨워준다. 즉,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소통과 차이의 수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민족공통성 창출의 방향은 언어나 통일주체에 관한 사례 외에도 문화·예술 등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내면적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앞서 본 '겨레말 큰사전 편찬'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사례 외에도 그동안의 문화·예술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교류와 소통의 과정이 있어왔다. 기존의 민족적 관점에서 여러 사례들의 의의는 동질성의 회복 지원 측면에 있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성(닮음)을 찾아내어, 이를 창출 및 확장하는 것이 '사람의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그렇기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고안한 내면적 통합의 연구가 앞으로 민족공통성 창출 연구의 방향이 될 것이다. 예로 SNS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상의 소통 방안 연구를 통해 모든 코리언들이 서로의 국경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민족공통성 창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사회·문화·예술·언어 등)에서 다양한 코리언들의 소통을 통한 차이의 이해에서 나아가, 닮음을 중첩하여 민족공통성을 찾아 창출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매체(SNS, 인터넷 등)의 활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통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차원에서 모든 코리언들의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민족공통성 창출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민족공통성 창출은 민족의 관점, 이념적 대립,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즉,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의 새로운 과제는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소통 활성화, 차이의 수용, 닮음(공통성)의 창출과 확장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의 의의

앞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의 사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통일은 '사람의 통일'을 의미한다. 이는 내재적·정서적 통합의 의미가 내포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다. 즉, 통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닌 '사람의 소통과 통합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 의미는 정치·경제·체제·이념의 통합 이전에 소통을 통해 교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며,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해 차이를 수용하고 공통성을 찾아 확장하는 과정이 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

www.kci.go.kr

고 있다.

첫째,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모든 코리언들의 민족적 합력을 이끌어 낸다. 그동안의 민족에 대한 동질성의 관점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모든 코리언을 존중하고 그 힘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학을 넘어서 통일학 정립에 기여함으로서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통한 사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이념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서 내면적 정서까지 고려한 통일학 정립에 기여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즉, 내 안의 타자로서 상대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평화적 화합 및 통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통합의 패러다임을 통해 모든 코리언들의 내재적 통합을 이뤄 진정한 의미의 통합('사람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민족공통성 창출 방향은 더 많은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이를 탐색하여, 닮음의 확장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통일 내지 통합을 위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닮음의 유사성을 찾아 증진하는 민족공통성의 창출 및 확장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17.5.11. ※ 논문 수정일: 2017.7.18. ※ 게재 확정일 : 2017.7.20.

www.kci.go.kr

참고문헌

저서

김성민 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통일인문학』, 알렙, 2015.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늘품 플러스, 2011.
배네딕트앤서슨 저,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선인, 2009.
민경우,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11.
서경식 외,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들의 시선』, 돌베개, 2006.

논문

이병수, 「민족공통성 개념에 대한 고찰」, 『시대와 철학』, 제22권 3호(철학사상연구회, 2011.)
김종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5.
강만길, 「한국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사상 연구』, 제12호(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2005.)
김성민 외, 「분단극복의 민족적 과제와 코리언 디아스포라, 『대동철학』, 제5집(대동철학회, 2012.)
박영균,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 『시대와 철학』, 제22권 2호(철학사상 연구회, 2011.)
권재일, 「남북한 어휘 단일화」, 『우리의 삶, 우리말에 담다』, 새국어생활 제25권 제4호, 2015.)

www.kci.go.kr

<Abstract>

A Humanistic Investigation for Integrating North and South Korea by Creating 'National Commonality'

Kim, Yeong-Sung(Dangjin Song Ak Elementary School)

Unification has a process meaning that promotes the harmony and quality of life of all Koreans, beyond the integration of politics, economy and land. In the meantime, the emphasis was on the logical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Among them, the national community approach emphasized the homogeneity of the nations did not recognize the mutual difference, and there was a limitation that it could not accept the korean diaspor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to find similarities through the process of overlapping, and to create "National Commonality" through the process of expanding them. This integration perspective is presented in this paper as an integrated paradigm through the creation of national commonality. The integration paradigm through the creation of national commonality focuses on the emotion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all Koreans. This viewpoint is also considered to be a point of view for the internal integration of all Koreans by accepting Korean diaspora as a unifying subject. And this paradigm was explored through the case of 'Germany' and the valu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as a model of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integration paradigm for the creation of national commonality will require the intrins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gration of politics, economy, and system should be pursued in parallel.

Key Words : Unification, Integration, National Community, Homogeneity, Heterogeneity, National Commonality, Difference, Similarity, Resemblanc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rean Diaspora.

www.kci.go.kr